

인천광역시립극단 2008년 공연실적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13건 / 49회			10,736명
<p>2008. 4. 11~20 소공연장 (11회)</p>	<p>제48회 정기공연 “불멸의 처”</p>	<p>작 / 이원경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차광영 정순미 송정화 최지연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윤경 서국현 이범우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김문정 이수정 최진영 김태훈 서창희 황혜원 이진영</p> <p>* 스태프 *</p> <p>조연출 / 손경희 음악감독/ 미하엘 슈타우더허 무대미술 / 최상철 의상 / 정경희 조명 / 최형오 분장 / 이동민 사진 / 유재형 바라지도/ 일초스님 승무지도 / 김경희 얼후지도 / 박래선 안무지도 / 김은주 기획 / 고동희 이옥희 기획보 / 임보영</p>	<p>사별한 부인을 그리는 애뜻하고 절절한 ‘思婦曲’</p> <p><불멸의 처>는 시공을 초월하여 가장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 고려 말이라는 시대배경을 바탕으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애절한 사랑을 밀도 있게 보여준다. <불멸의 처>에서는 왕이 주도하는 궁중의 복잡한 정치상황이나 고위 권력층의 치열한 권력 다툼은 걸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공민왕 개인의 심리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놓치지 않고 그려낸다. 반면 범패의식과 바라, 승무 등 고려사회의 전통의식이 간결하면서도 화려하게 재현되면서 극의 흐름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특히 보탑실리의 춤을 통해 노국대장공주의 심정을 표현한 무용은 대사형식을 벗어나 무대와 관객이 소통하는 공연의 신선한 형식을 선사한다. 또한 마지막 이별장면에서 공민왕을 향한 노국대장공주의 애절한 주제곡은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오랜 여운으로 남겨준다.</p> <p><줄거리></p> <p>고려의 31대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공주가 난산 끝에 숨을 거두자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진다. 멀리 원나라에서 자신에게 시집은 공주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으로 공민왕은 정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위한 영전을 새로이 짓고 직접 그린 왕비의 초상을 건다. 아울러 승려 신돈을 불러 왕비를 위한 불공과 치성에만 전념한다.</p> <p>태후와 재상들, 그리고 후궁인 익비가 왕조의 대를 이을 후사를 걱정하지만 공민왕은 젊은 동자를 익비의 침실로 보내 죽은 왕비에 대한 절개를 지킨다. 노국공주에 대한 공민왕의 성정을 헤아린 신돈은 왕비를 추모한다는 구실로 갖가지 권세를 부리고, 심지어 왕비가 환생했다며 왕의 눈과 귀를 현혹한다.</p> <p>익비의 임신 소식이 날아든 가운데 공민왕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며 자괴감에 빠져 어머니인 태후와 재상들의 충언을 따르지 않는다. 결국 공민왕은 익비의 임신과정을 숨기려는 음모 속에서 환관인 최만생의 칼을 맞고 쓰러진다. 노국공주를 향한 연정을 가득 품은 공민왕은 죽어가면서도 왕비의 영전으로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치다 그녀의 초상 앞에서 숨을 거둔다.</p>	<p>1,149명</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08. 5. 9(금) 부평문화사랑방	“철부지들”	원작 / 톰 존스 연출 / 이종훈 * 출연진 * 최진영 김태훈 서창희 황혜원 이진영 * 스텝 * 기획 : 고동희 이유희	철부지들은 1960년에 하비 스카미트와 톰 존스가 만든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에드몽 로스망의 희곡 “낭만적인 사람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춘기 아이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가도록 하는 두 아버지의 우화적인 이야기다. 오프브로드웨이 초연은 42년간 17,162회나 공연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적인 대본에다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잔잔한 음악과 “Try to Remember”와 같은 익숙한 노래들이다. 오프브로드웨이 이외에 많은 곳에서 공연이 이뤄졌고,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로도 각색됐다. 초연 때부터 소도시와 지역공동체와 고등학교에서 공연을 올리기에 매우 적합한 작품이라고 알려졌으며, 적은 출연진과 아주 간단한 무대와 소품으로 공연이 가능한 작품이다.	150명
2008. 5. 14(수) 예림원			200명	
2008. 5. 22(목) 인천구치소			200명	
2008. 5. 24(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토요상설무대 “철부지들”	350명
2008. 6. 24(화) 인정재활원			“철부지들”	150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08. 7. 30~31 (2회) 수송대 돌담극장</p>	<p>거창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소금장수”</p>	<p>작 / 이연호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김봉환 심영민 강주희 이범우 차광영 강성숙 서국현 김세경 최진영 정남철 김태훈 서창희 김문정 최지연 이수정 황혜원 김용란 조옥선 송정화 정순미</p>	<p style="text-align: center;">소망을 파는 한여름 밤의 야외뮤지컬!!</p> <p><소금장수>는 소금장수 설화를 야외 뮤지컬 형태로 구성한 작품으로, 어린 아이와 엄마의 간절한 사랑이야기다. 한 편의 예닐 이야기들을 듣는 것처럼 긴장감을 더해가며 몰입할 수 있으며, 야외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편안한 관람을 유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전통가락과 춤사위를 곁들임으로써 신명과 감동을 전한다.</p> <p>인천시립극단이 준비하는 <소금장수>는 극단의 시즌별 레퍼토리 가운데 여름 작품으로, 실내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야외공연으로 제작한다. 야외공연은 무대장치나 공간의 활용이 정형화된 실내 공연장에 비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연조경 등을 고려하면 실내공연과는 전혀 다른 공연의 묘미를 선사할 수 있다.</p> <p>우리의 전래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금장수>는 전통가락과 춤사위를 곁들이며 자연과 관객과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선물을 선사하고자 한다.</p>	<p>1,400명</p>
<p>2008. 8. 2~3 (2회) 마산 MBC홀</p>	<p>마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소금장수”</p>	<p>* 스텝 *</p> <p>조연출 / 손경희 작곡/ 홍동기 음악감독 / 김봉환 무대디자인 / 송관우 의상 / 정경희 분장 / 손진숙 사진 / 유재형 조명 / 용선중 기획 / 고동희 이옥희 기획보 / 임보영</p>	<p><줄거리></p> <p><소금장수>는 소금장수와 미라가 된 아이의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다. 등짐을 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소금장수는 산 듯이 죽어 있는 미라 아이를 소금 고리짜 밑에 넣어 다닌다. 그 아이가 헤어진 제 어미를 만나는 순간 환생한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는 소금장수는 아이와 어미의 만남을 위해 소금 짐을 지고 돌아다닌다.</p> <p>배꽃이 하얗게 만발한 마을 앞은 푸른 강물이 출렁대며 흐른다. 소금장수가 그 강을 건너온 날 동네의 늙은 좌수에게 보쌈질을 당해온 각시과부가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p> <p>소금 장수는 고리짜 속의 아이가 제 어미를 만나는 날 소금을 산 사람들은 모두 소망성취를 한다는 선포를 하면서 소금을 판 후 강을 건너간다. 때맞춰 마을 사람들은 배꽃 같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뱃전에 앉아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봤다고들 하면서 소금장수의 고리짜에 더 관심이 높아진다.</p>	<p>50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8. 8. 5(화) 무의도 하나개	“철부지들”	<p>* 출연진 * 최진영 김태훈 서창희 황혜원 이진영</p>	<p>철부지들은 1960년에 하비 스카미트와 톰 존스가 만든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에드몽 로스망의 희곡 “낭만적인 사람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춘기 아이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가도록 하는 두 아버지의 우화적인 이야기다.</p>	150명
2008. 8. 8~17 야외공연장 (8회)	제49회 정기공연 “소금장수”	<p>작 / 이연호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 김봉환 심영민 강주희 이범우 차광영 강성숙 서국현 김세경 최진영 정남철 김태훈 서창희 김문정 최지연 이수정 황혜원 김용란 조옥선 송정화 정순미</p> <p>* 스텝 * 조연출 / 손경희 작곡/ 흥동기 음악감독 / 김봉환 무대디자인 / 송관우 의상 / 정경희 분장 / 손진숙 사진 / 유재형 조명 / 용선중 기획 / 고동희 이옥희 기획보 / 임보영</p>	<p>소망을 파는 한여름 밤의 야외뮤지컬!!</p> <p><소금장수>는 소금장수 설화를 야외 뮤지컬 형태로 구성한 작품으로, 어린 아이와 엄마의 간절한 사랑이야기다. 한 편의 예닐 이야기들을 듣는 것처럼 긴장감을 더해가며 몰입할 수 있으며, 야외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편안한 관람을 유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전통가락과 춤사위를 곁들임으로써 신명과 감동을 전한다.</p> <p>인천시립극단이 준비하는 <소금장수>는 극단의 시즌별 레퍼토리 가운데 여름 작품으로, 실내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야외공연으로 제작한다. 야외공연은 무대장치나 공간의 활용이 정형화된 실내 공연장에 비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연조경 등을 고려하면 실내공연과는 전혀 다른 공연의 묘미를 선사할 수 있다.</p> <p>우리의 전래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금장수>는 전통가락과 춤사위를 곁들이며 자연과 관객과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선물을 선사하고자 한다.</p> <p><줄거리></p> <p><소금장수>는 소금장수와 미라가 된 아이의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다. 등짐을 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소금장수는 산 듯이 죽어 있는 미라 아이를 소금 고리짜 밑에 넣어 다닌다. 그 아이가 헤어진 제 어미를 만나는 순간 환생한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는 소금장수는 아이와 어미의 만남을 위해 소금 짐을 지고 돌아다닌다.</p> <p>배꽃이 하얗게 만발한 마을 앞은 푸른 강물이 출렁대며 흐른다. 소금장수가 그 강을 건너온 날 동네의 늙은 좌수에게 보쌌질을 당해온 각시과부가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p> <p>소금 장수는 고리짜 속의 아이가 제 어미를 만나는 날 소금을 산 사람들은 모두 소망성취를 한다는 선포를 하면서 소금을 판 후 강을 건너간다. 때맞춰 마을 사람들은 배꽃 같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뱃전에 앉아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봤다고들 하면서 소금장수의 고리짜에 더 관심이 높아진다.</p>	2,153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8. 9. 23~26 학생교육문화회관 (6회)	“철부지들”	* 출연진 * 최진영 김태훈 서창희 황혜원 이진영	철부지들은 1960년에 하비 스카미트와 톰 존스가 만든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에드몽 로스망의 희곡 “낭만적인 사람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춘기 아이들이 참된 사랑을 찾아가도록 하는 두 아버지의 우화적인 이야기다.	1,472명
2008. 9. 27(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400명
2008. 11. 29 ~ 12. 7 소공연장 (13회)	제50회 정기공연 “맥베스”	<p>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번역 / 신영옥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차광영 송정화 김용란 정남철 조윤경 서국현 이범우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황혜원 서창희</p> <p><객원> 이강덕 구선모 이정훈 채 건</p> <p>* 스텝 *</p> <p>조연출 / 손경희 작곡/ 미하엘 슈타우다허 무대미술 / 이태섭 의상 / 정경희 조명 / 최형오 분장 / 이동민 사진 / 유재형 기획 / 고동희 이옥희 기획보 / 김은호</p>	<p>천재적인 시적 표현과 인간 내면세계의 극한을 추구한 셰익스피어의 최대의 걸작!</p> <p>1600~1606년에 씌어진 4편의 비극이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최고 걸작이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가장 마지막 작품이며, 가장 짧은 작품이기도 하다. 군더더기 없는 탄탄한 짜임새와 전편에 일관되게 흐르는 긴장은 다른 <맥베스>의 특징이다.</p> <p><맥베스>는 시적 언어로 표현한 아주 간결한 대사가 백미로 꼽힌다. 고도로 응축된 시적 표현은 각 인물들의 끔찍스런 영혼의 내면을 비춰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동시에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을 적절하게 드러낸다.</p> <p>권력의 야망에 이끌려 왕위를 찬탈하고 끝내는 비극적 결말을 불러오는 과정을 단순한 정치적 욕망의 차원이 아닌 인간의 양심과 영혼의 파멸로 그려낸다. 절호의 기회에서 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갖기로 하는 순간 맥베스는 이미 운명처럼 자기파멸의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맥베스는 권력을 향한 가해자이면서 권력에 의한 피해자이다.</p> <p><줄거리></p> <p>스코틀랜드의 무장(武將)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에 현혹되어 강한 권력욕을 지닌 부인과 공모하여 자기의 성을 방문한 국왕 던컨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동료인 벵코 장군의 자손이 장차 왕자가 된다는 예언을 믿고, 벵코 부자(父子)의 암살을 계획하지만 그의 아들은 도망친다.</p> <p>맥베스의 폭정을 저주하는 소리가 전국에 퍼지고 반란이 일어나자 맥베스는 다시 마녀를 찾아가 예언을 요구한다. 마녀는 버남 숲이 그의 성을 공격하지 않는 한 안전하며, 여성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결코 그를 패망시킬 수 없다고 예언한다.</p> <p>그러나 던컨왕의 아들 맬컴을 추대한 맥더프가 인솔한 군대는 버남 숲 속의 나뭇가지를 베어 들고 몸을 감추면서 맥베스의 성(城)을 공격한다. 이때 부인이 미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망하던 맥베스는 최후의 용기를 내어 싸우지만 맥더프가 어머니의 배를 절개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자 절망적이고 대결 끝에 맥더프에게 살해된다.</p>	2,462명

